

소장품 TF 1차 결과보고서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수집연구과장(전) 홍승주

수집연구과 정유진, 이설희, 김아영

수집연구과 김민선(코디네이터)

목 차

1. 진화하는 미션

- 1-1. 기관 비전 및 미션
- 1-2. 소장품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2. 소장품 TF 운영 방향

- 2-1. 소장품 수집 개요
- 2-2. 현황 및 문제점

3. 소장품 정책 실천 방향 검토

- 3-1. 소장품 정책 및 방향 재고
- 3-2. 소장품 연구 방향 검토
- 3-3. 소장품 전시 방향 검토

1. 진화하는 미션

1-1. 기관 비전 및 미션

(1) “21세기 현대미술관”: 다층적 모더니티

서구형 대표미술관을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지역의 다층적 모더니티(multiple modernity)를 구현하는 동시대 미술관의 유형에 대해서 탐구하고 실행해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21세기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의 격변하는 역사와 동시대 사회에 ‘반응’하는 미술(context sensitive art)을 생성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미술관들을 기능적 차원에서 취사 참고하여 하나의 구조로 짜는 ‘앗상블라주(asmsemblage)형 미술관’이 될 것이다.

(2) “사회문화적 가치”: 창의적 지성과 실천의 네트워크

21세기 현대미술관은 작품 디스플레이 위주의 전시 장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적 사고와 지성의 네트워크로 전환되고 있다. 단순한 미술품 보존과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사회문화적 가치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전파하는 창의적인 지성과 실천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열린 구조의 미술관은 차이와 대립이 공존하는 사회적 공간이며 새로운 민주적 공공 영역을 창출하는 신진문화기관이 될 것이다.

(3) “시각예술의 성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수행

시각예술이 점차 이미지 중심에서 퍼포먼스로, 미디어에서 데이터로 라이브러리에서 아카이브로 확장, 변화하고 있으며, 미술관 기획의 초점은 전시 기획만을 의미하는 큐레이팅에서 예술을 매개로 한 프로그래밍의 기획을 의미하는 큐레이토리얼로 이동하고 있다. 퍼블릭은 단순한 수용자를 넘어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수행하는 정치적 주체로서 미술관의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입하게 된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전례 없이 높은 시각문화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서울 시민의 역량을 진취적 시각예술의 성과와 교차시키는 거점 기관이다.

1-2. 소장품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 ▶ 도시 서울의 특성을 드러내 주는 소장품 정책과 특화된 전시 전략
- ▶ 세계 미술의 수요와 호출에 직접 응대하는 통로 확보

(1) 지적 콘텐츠, 세계 공유재로서의 소장품

미술관 자산 관점에서 출발하는 기존의 소장품 정책을 연구에 기반을 둔 지적인 콘텐츠 차원으로 심화하여, 국내외 미술기관과 능동적으로 교류하는 '세계 공유재로서의 소장품' 시대를 준비한다. 소장품의 단순 매체별 분류를 넘어서는 전략적인 수집 정책과 수집품 연구를 통해 작품의 키워드를 도출하고, 새로운 범주로 재편되는 온/오프라인 소장품 플랫폼을 구축한다.

(2) 소장품 전시의 다각화: 소장품 재해석 / 미술사 다시 상상하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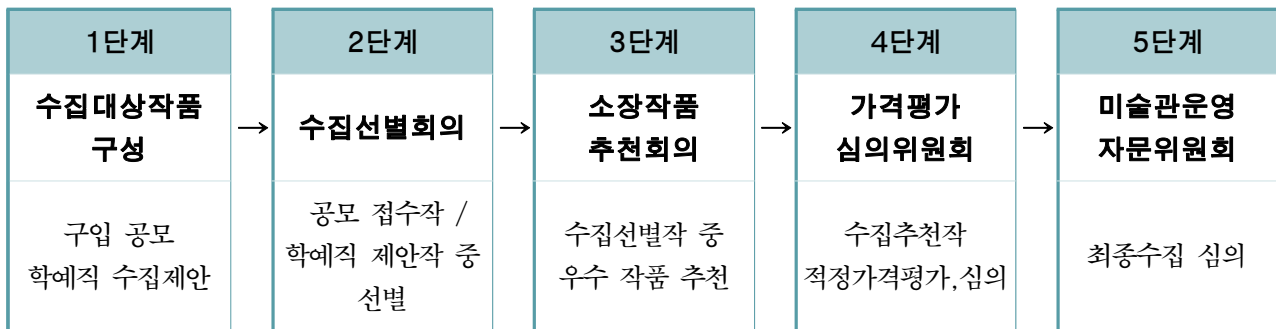
미술 외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을 기획자로 초청하여, 소장품을 재해석하고 미술사를 다시 상상하는 <SeMA Collection Recollected(가제)> 시리즈를 정례화하여 소장품 전시를 다각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창조적으로 재맥락화 한다.

2. 소장품 TF 운영 방향

- ▶ 기존 소장품 정책 및 방향 재고
-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소장품 아이덴티티 확립
- ▶ 획기적인 수집 전략 수립 및 실행 방안 도출
- ▶ 소장품 온/오프라인 플랫폼 확대

2-1. 소장품 수집 개요

□ 소장작품 수집 절차



□ 소장작품 수집 방향

○ 기본 수집 대상

- 미술사적 대표작가 작품 (1950~1980년대)
- 동시대 한국미술의 우수작가 작품 (1990년대~현재)
- 미술관 자체 기획전 우수 출품작 및 학예직 제안작
-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우수 출품작
- 시민친화적 작품 (야외조각, 설치, 공공미술 작품)
- 자치구 순회전시에 적합한 대중적인 작품 수집
- 국내.외 수준 높은 작품 (선별적 수증)

○ 구입 대상

- 미술사적 대표 작품(1950~80년대)
 -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미술사적 의의 있는 대표작가의 대표 작품
 - 70~80년대 실험미술, 개념미술, 80~90년대 페미니즘 미술 작품
 - 기소장작품을 보완할 수 있는 미술사적 작품(예. 가나아트 컬렉션 연계 '80년대 민중미술 및 포스트민중미술 작품)
 - 미술사조, 미술운동, 미술사적 주요 작가의 해당 시기 작품
- 동시대 우수 작품(1990년대~현재)
 - 동시대 한국 미술 주요 작가(역량 있는 중진작가 등)의 우수 작품
 - 잠재력 있는 신진작가의 한국 미술의 미래지향적 작품
 - 자체기획전 및 미디어시티비엔날레 출품작 중 소장가치 있는 우수 작품
 - 국내 비엔날레, 해외 미술제(비엔날레 등) 등 해외 활동 작가 작품
 - 기소장작품을 보완할 수 있는 동시대 한국 미술 주요 작품
 - 동시대 해외 우수작가의 작품
- 시민친화적 작품
 - 대외협력전시 등 시민과의 미술소통에 적합한 대중적인 작품
 - 서울의 지역성, 상징성을 드러내는 작품

○ 수증 대상

- 한국 근·현대 미술 주요 작가 대표작품 선별적 수증
 - 국내 미술 컬렉션의 질적 제고
- 중진 및 신진작가 수증 확대
 - 공공미술관에의 작품기증 문화 활성화
- 기존 소장작품 보완 차원의 순수 기증 유도
 - 기소장작가 작품 수증을 통한 작가별 컬렉션 확대
- 자체기획전 출품 국내외 우수 작품 기증 유도
 - 컬렉션의 질적 제고 및 세계적 경쟁력 강화
- 평론가, 이론가, 연구자 등 미술 전문가 관련 작품 수증

2-2. 현황 및 문제점

□ 문제접근 방법

- 절차적 측면 : 수집 절차, 심의
- 내용적 측면 : 수집 방향, 목표

□ 절차적 측면

- ① 수집계획 수립
- ② 수집대상작 구성(공모/학예직제안)
- ③ 수집 내부선별회의
- ④ 소장작품추천회의(외부심의)
- ⑤ 가격평가심의위원회(외부심의)
- ⑥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외부심의)
- ⑦ 구입계약 및 작품반입

① 수집계획 수립

- 중장기 수집계획 수립(5년 단위)
 - 전(全) 소장품에 대한 분석 선행
 - 수집의 전략성, 구체성 확보 필요
- 단기 수집계획 수립(1년 단위)
 -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한 연단위 수집목록 설정, 수집대상 구체화

② 수집대상작 구성 방법

① 공모

- 현행 : 일반공모(자격 제한, 내용 제한 없음)

[운영상 문제점]

- 임의적 : 수집계획에 따른 계획적 수집 어려움
- 수동적 : 공모신청작의 질 여하에 따라 구입작의 질 좌우됨

- 비효율적 : 전체 공모신청작 중 7~8% 정도만 최종 구입
수집업무의 낭비적 과부하 초래

[근본적 문제점]

- 조례상의 규정 : "공모 구입"은 조례 규정사항으로 개정·폐지 쉽지 않음
- '공모제'가 가진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의 함의
 - 시의회 및 시민 설득의 문제
- 공모에 대한 기대 : 작가 및 화랑들의 공모에 대한 기대(2003년부터 지속)
cf. 국립현대미술관 : 미술은행에서 공모제 시행함으로써, 학예직제안만으로
수집 추진될 수 있는 이점

[공모제 유지]

- 현행대로 공모제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조절하여 활용
 - 2회차 수집 중 1회차만 공모 진행
 - 학예직제안 수집과 비율 조정해 진행
-->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 미해결
- '제한 공모제'의 도입
--> 작가, 화랑의 민원 발생 가능성

[공모제 대안]

- 미술은행 제도의 서울시 도입 검토 고려

① 학예직제안

- 기획전 출품작 제안이 대부분(80~90%)
 - 전시-수집 정책의 일관적 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함
 - 기획전에 커미션 혹은 제작비 지원 비중 높아지는 추세에 대한 대응 필요
- 기존 컬렉션의 적극적 보완 어려움
 - 학예직 수집 제안의 투트랙(two-track) 운영
전시과/학예과 : 기획전 출품작 수집 제안
수집연구과 : 기 컬렉션 보완 수집 제안
 - 기존 컬렉션이 지향하고 있는 미술사 기반 수집의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

③ 수집심의

○ 수집 심의위원회

- 외부위원 인력풀 보완, 확대
 - 특히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가격 전문가' 보완 필요
- 내부학예직 참여 범위 문제
 - 현재 학예연구관급만 참여

□ 내용적 측면

○ 기존 수집 경향

- 미술사적 접근 방법
- 작가 중심 수집

○ 새로운 수집 방향 모색

1. 전략적 수집 정책

- Q. 어떤 전략이어야 하는가?
- Q. 어떻게 차별화 할 수 있는가?
- Q. 중점 수집 분야는 무엇인가?
- Q. 소장품 전시, 연구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

2. 기존 수집 방향으로부터의 전환

- 단순 매체분류 지양
- 기 소장품 연구 --> 키워드 도출
 - > 새로운 범주화 re-categorizing
 - > 주제 분류화
- 주제 컬렉션 도입: <도시, 서울> 컬렉션
 - 미술사적 컬렉션 -> 통시적 접근
 - 주제 컬렉션 -> 공시적 접근
- 해외 컬렉션
 - 아시아 지역

- 여타 지역
- 기타
 - Young Artists 컬렉션
 - 뉴미디어 컬렉션
 - 사진 컬렉션 <-- 사진미술관 연계
 - 아카이브 연계 컬렉션 <--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 연계

3. 소장품 콘텐츠 소비 방식

- 온-오프라인 소장품 플랫폼
 - 오프라인 플랫폼
 - 온라인 플랫폼
- 소장품 전시 다각화
 - 외부 creator의 참여
 - SeMA-Collection_recollected
 - 소장품 재해석 -> 미술사 다시 상상하기, constellation

4. 외부 수집추천제도 도입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수집대상작품의 구성 등)

- ① 관장은 소장작품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서울시보 및 시립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장작품 구입공고를 게재하여 작가, 작품소장자, 화랑, 법인 등으로부터 작품 매도 신청을 받는다.
- ② 관장은 국내 미술관, 화랑 등의 전시작, 국내·외 아트페어 출품작, 원로작가·중진작가·작고작가의 유족 및 소장자의 소장작 등을 수집대상작품으로 섭외한다.
- ③ 시립미술관의 학예연구직공무원은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집할 작품을 제안한다.

- 외부 수집추천제도
 - 관장은 “국내 미술관, 화랑 등의 전시작, 국내·외 아트페어 출품작”으로부터 정보를 확보하고 섭외할 수 있을 것.
 - “작가, 유족, 소장자”의 소장작 등에 대한 정보 및 출처 등을 확보하고 섭외 할 수 루트에 대한 조언 가능

[장점]

- 작가, 작품, 미술계 동향 등에 대한 외부 인력의 전문성의 역량을 흡수, 다양한 시기, 작가, 미술사적 접근 가능
- 공모 폐지, 학예직제안 확대 과정상의 보완적 형태로 운영

[고려사항]

- 미술관 소장작품 수집에 외부 전문인력 의존도 커짐
- 미술관 내부 학예인력의 수집에 대한 관심도 저하 요인 가능성

3. 소장품 정책 실천 방향 검토

3-1. 소장품 정책 및 방향 재고

□ 수집 제도 개선

- ① 예산 증액 방안 마련 필요
- ② 제도적 보완 필요
 - 공모제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미술은행 제도 신설을 시의회에 요구하는 방식 검토

□ 소장품 아이덴티티 구축

- ①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컬렉션 집중 필요
 -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10회 출품작가 리스트 확보 후, 중요 작가 작품 수집 및 보완
- ② 기존 컬렉션 연구 통한 SeMA 컬렉션의 차별화 필요
 - SeMA 컬렉션은 이미 가나아트, 최민, 천경자, 사진 컬렉션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덩어리로 놓고 미술사와 작가를 중심의 두 가지 컬렉션에만 집중하더라도 이것들을 종횡으로 엮어 키워드 도출과 카테고리 범주화가 가능

□ 소장품 온/오프라인 플랫폼 확대

- ① 소장품 온라인 플랫폼 확대
 - 소장품 공유 개념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 예산 확보 선행
 - 관련 정보 유저(user)에 대한 연구 및 홍보 방안 필요
 - ex. 메트로폴리탄 뉴욕의 '내가 사랑하는 애장품' 소개 홍보 영상 참고
- ② 미디어아트 스크리닝 전시
 - 크리스탈룸 활성화 혹은 외부 기관과 협업방안 연결하여 모색

③ 대외협력전시-시민큐레이터 간의 매칭

-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전시로서,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큐레이터 인력풀을 활용한 지속적인 전시기획 지원책으로 활용
- 교육홍보과와의 논의 및 소장품 관련 교육 필요

□ 쌘지 컬렉션 기증 관련 논의

① 성격

- 90년대 쌘지 레지던시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250여점 작품
- SeMA 80년대 리얼리즘 미술 컬렉션과 접점 및 연계성 있음

② 기증 절차 검토

- 현재 소장품 수증은 무상수증이 원칙이므로, 외부 펀딩을 통해 후원회 SeMA인을 통한 기부 검토
- 외부 펀딩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기증자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예우 사례 검토 필요
ex. SFMoMA Doris and Donald Fisher Collection 기탁 사례 검토

□ 종합의견

- 현재 도출된 안건들을 정리 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
- 수집연구과의 소장품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결과는 중장기 수집계획에 수렴되어야 함

□ 향후 검토 사항

- 수집 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 모색
-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10회 출품작가 리스트 확보
- 대외협력전-시민큐레이터 매칭 관련 교육홍보과 협의

3-2. 소장품 연구 방향 검토

□ 소장품 연구 트렌드 변화

○ 소장품에 대한 다각적 접근

- Timeline – Art History
- Keyword – Theme
- Institution – Museum & Collection, Collection policy history
- Archive – Primary Documents
- Interview – Artists

--> 미술사적 접근을 강조하던 기존 방식에서 주제 및 기승 기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 연구/참여 주체의 변화

○ Curator, professional --> Public (다양한 주체)

- 전시-교육 등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확대 방안 고민 필요

□ 연구 결과물의 변화

○ 출판 --> 온/오프라인 플랫폼 확대

- 홈페이지 “소장품 하이라이트” 추가
 - 해제 연구 프로젝트(주제별 연구 진행) 지속 --> 온라인 플랫폼 배포
 - 주제별 하이라이트 시리즈 기획 필요
 - 소장품 고화질 이미지 확보 시급
 - 소장품 정보 키워드 작업 필요
 - 해제 연구 프로젝트 + 키워드 추출 작업 --> 온라인 플랫폼 배포
 - 키워드 간 연계 작업을 위한 소장작품 DB 시스템 고도화 필요
- ex) rijks museum

○ 전략적 출판

- 기존 소장품 연구 출판물(해제 중심)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 플랫폼이 완성된 상황에서 출판 형식 및 내용에 대한 재고 필요
- 소장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반영한 연구물 출판의 형태로 변화 필요
- 소장품 관련 출판 유통 방식 고민 필요
 - 현재 비매품 방식, 유료 방식으로 전환, 혹은 총판 등...)

○ 소장품 재해석 전시

- SeMA Multi-Access가 소장품을 수집, 연구한 기존 접근법을 보여주는 전시라면,
- 현재 소장품 정책이 변화하는 기점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지점과 과정을 질문으로 정리, 대중에게 공개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전시-연계 연구 프로젝트” 제안

ex) **play van abbe**(The Van Abbemuseum)

: 미술관 초기 소장품의 뼈대를 보여주는 전시-현재 미술관의 ongoing directions를 대조하는 전시

: 소장품 기술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현대미술에서 매체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전시

: 전략적 수집을 수집가의 방처럼 구성해서 보여주는 방식

3-3. 소장품 전시 방향 검토

□ 접근경로

- 기존 전시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 대한 제고 --> 다른 방식의 대안 제시

□ 소장품 전시 운영 현황

○ 대외협력전시

- 운영현황 : 대외협력전시 3-5회 개최 / 1년
 - 문제점
 - 비효율적 : 대중적인 작품 및 대중성을 지향한 전시 기획의 기준 모호
- 대안) 시민큐레이터 - 대외협력전시 매칭**

○ 세마컬렉션라운지

- 운영현황 :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tbs교통방송, 서울시 신청사(5개소) / 1년 단위 교체
- 문제점
 - 수동적 : 전시 기획의 개념보다는 소장품 교체 자체에 중점
 - 비계획적 : 협력기관 담당자의 스케줄 혹은 추진력에 따라 교체 여부 결정
 - 학예인력의 비효율적 운영

□ 대안적 방향성

○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고찰

- 전시라는 물리성을 가지지 않지만 소장품을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을 탐색
 - 기존 전시 포맷으로 소장품 활용도를 체크했던 시스템의 대안 제시
- 비물질적인 콘텐츠에 대한 자체 기획의 필요성 제고
- 수집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동시대 매체 트렌드 반영
 - 뉴미디어 적극 활용

- 물리성을 가지지 않는 장르의 작품 --> 다양한 방식의 피처링 모색 용이
 - ex) 공간 사용 : 프로젝트 갤러리 - 스크리닝 프로그램(video fever)
 - ex) 온라인 플랫폼 활용 : 미술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소장품 노출
 - <귀신 간첩 할머니> 장영혜중공업 비디오 상영
- 채널 탐색
 - 소장품 중심의 채널 제작,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기획 수립
 - ex) 해외 : Walker Channel(Walker Art Center), Art21, Tate, HKW 등
 - 국내 : 엘리스온, 사비나 채널, 현대자동차 아트랩 등